

기기문, 국내 클라우드 가시성 시장 공략 강화

▲ 청중길 기자 | ○ 입력 2022.07.08 15:33 | □ 댓글 0

기 기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인프라 가시성 통합 분석 솔루션 '호크(Hawk)' 발표

[아이티데일리] 클라우드 가시성 및 애널리틱스 분야 글로벌 기업인 기기문(Gigamon, 한국지사장 박희범)이 국내 금융, 공공 및 서비스 제공기업(SP) 고객 확보에 본격 나선다. 회사는 복잡한 컴퓨팅 운영 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가시성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과 보안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딥 음저버빌리티' 클라우드 인프라 가시성 분석 통합 솔루션인 '호크(Hawk)'를 발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나설 계획이다.



기기문의 호크(Hawk)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트래픽 가시성 통합 분석 솔루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가시성 격차를 해소한다. 호크는 모든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가시성 및 분석 페브릭 솔루션으로, 모든 클라우드에 대한 높은 가시성(Elastic visibility for any cloud)을 제공한다. 호크의 '코드로서의 가시성(visibility as code)' 기능은 클라우드 자동화에 내장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스케일업(scale-up) 및 스케일아웃(scale-out) 방식의 원활한 확장을 지원한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단일 라이선스 모델은 모든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활용 가능하다.

기존 네트워크 도구를 사용해 클라우드 가시성(Cloud visibility for network tools)을 확보할 수도 있다. 호크는 기존 네트워크 도구를 통해 모든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2~7 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에이전트리스(agentless) 가시성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도구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Network visibility for cloud tools)도 확보 가능하다. 호크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메타 데이터를 통해 이스트-웨스트 컨테이너 트래픽(east-west container traffic) 및 기존에 권리가 어려웠던 모바일 기기 등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움직이는 데이터(dealer in motion, Data in motion)에 대한 '직접적인 정답(ground truth)'을 클라우드 도구에 제공한다.

이미존웹서비스(AWS), 애저(Azure)를 비롯한 기타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 및 도구의 통합화 하이브리드 인프라 전반에 대한 통합 뷰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AWS와 같은 호크 솔루션은 디스터트 EC2 인스턴스에서 트래픽을 캡처하기 위해 자동으로 확장되는 유연한 가시성△여러 도구에 미러링된 트래픽의 효율적인 분석△증·실시간 또는 하스토리 분석을 위해 AWS 스토리지 버킷에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조직은 기기문 호크를 통해 보안 및 규제 준수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화하며 IT 팀, 클라우드 운영팀, 정보보안 팀이 기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 및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기문의 사이먼 리(Simon Lee) API 세일즈 총괄 부사장은 "기기문은 성장적인 딥 음저버빌리티(Deep observability) 기반의 네트워크 가시성 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으로, 세계 유수의 조직들의 신속한 운영과 보안 유지 및 혁신을 지원한다. 기기문은 업계 최초의 유연한 가시성 및 분석 페브릭 솔루션을 제공, 클라우드 도구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 및 '네트워크 도구를 사용해 클라우드 가시성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우드 가시성 격차 해소를 드는다"면서 "딥 음저버빌리티를 통해 기업 고객들은 보안 및 컴퓨레이션스 거버넌스를 보장하고, 성능 병목 현상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최신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IT 인프라 관리와 관련된 운영 추가 지원(오버헤드)의 소모를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기업은 클라우드의 원활한 진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기문 코리아 박희범 지사장은 "디지털 혁신 및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딥 음저버빌리티(deep observability)를 지원하는 기기문의 가시성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기기문은 업계 최초의 탄력적인 가시성 및 분석 솔루션과 함께 실시간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 보안 및 성능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IT팀의 전체적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조직은 고객의 디지털 경험 개선과 내부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고객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딥 음저버빌리티 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기문이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 할 수 있도록 국내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고 | '관찰가능성'이 엔지니어의 핵심 도구인 이유

● 2022.06.29 Aidan Cuffe | IDG Connect



IT 기술 스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디지털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 시간을 유지하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소스와 스킬을 얻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단일 플랫폼으로 기술 스택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찰가능성(또는 음저버빌리티(Observability))'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모두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기술 스택은 복잡해지고, (그 결과) 소비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편리함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계층이 추가될 때마다 디지털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 시간을 유지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비즈니스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다.

버그와 운영 중단은 기술 부문에서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스택이 복잡해지면 문제가 발생한 곳을 찾고 수정하는 일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서들이 사일로화돼 있는 대규모 기업에 특히 문제다. 버그와 공격, 그에 따른 다운타임으로 인해 기업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관찰가능성이란?

관찰가능성은 스택이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각 부문의 IT 애플리케이션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신, 단일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기업의 전체 스택에 관한 360도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버그가 발생하면 개발자가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다.

관찰가능성은 이미 운영 중인 기술 스택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이전 제품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거나, 새로운 제품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관찰가능

관찰가능성의 이점과 함정

관찰가능성 플랫폼의 이점은 단일 창에서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 플랫폼에서 전체 스택을 볼 수 있다는 건 엔지니어가 운영 속도를 높이고, 한 곳에서 비즈니스 보안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찰가능성 플랫폼을 쓰는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가 직면하는 몇 가지 장애물도 있다. 뉴렐릭(New Relic)의 2021년 관찰가능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4%가 성숙한 관찰가능성 행위가 없고 밝혔다. 관찰가능성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리소스 부족(38%)과 스킬 격차(29%)였다.

개발자에게 주된 문제는 호환성이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관찰가능성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오픈소스 도구, 엔터프라이즈 기술까지 다양한 제품과 호환 및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뉴렐릭의 인스턴트 음저버빌리티(Instant Observability) 플랫폼은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500개 이상의 도구와 호환된다. 이러한 수준의 통합이 없으면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와는 상관없이 관찰가능성 플랫폼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

팀워크 향상

버그와 사이버 공격에서 기술 스택을 보호하는 일은 고객 및 벤더와 신뢰를 구축하려는 모든 기업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환경이 분산돼 있다는 점은 이를 어려운 과제로 만든다.

각 구성요소는 수천 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으며, 여러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분산돼 있다. 이를 서로 다른 내부 및 서드파티 엔지니어링 팀에 의해 운영되며, 사일로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이 수행하는 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일로에 따라 늘어난 사각지대는 보안 및 비즈니스 위험으로 이어지며, 개별 팀이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취약점 관리에 중점을 둔 관찰가능성 플랫폼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보안 신호를 통합하여 모든 엔지니어가 팀이나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함께 협력해 대규모 보안 위협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제공 및 운영을 가속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협업은 보안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게 해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면에서 관찰가능성은 2022년 모든 엔지니어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기업 전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운타임을 줄

[올쇼TV]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위한 Security 및 Observability

입력 2021.11.18. 오전 9:02



오에스씨코리아는 1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에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위한 Security 및 Observability'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는 수많은 IT 담당자들 사이에서 표준 플랫폼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면서 보안(Security)과 Observability가 회자되고 있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워크로드의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고 멀티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 이슈를 실시간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오에스씨코리아는 본 웨비나를 통해 컨테이너 보안(Security) 및 관측가능성(Observability)이란 무엇이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Calico를 소개한다. Calico를 통해 변화무쌍한 Cloud Native환경에 손쉬운 접근 Ingress/Egress 보안, 보안 및 규정 준수, Observability 및 Troubleshooting 등 주요 칭점에 대해 알아본다.

자세한 내용은 올쇼TV 홈페이지(<https://www.allshowtv.com/detail.html?idx=8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깃랩, 포괄적인 단일 플랫폼으로 데브옵스 혁신 앞장

강석오기자 | ○ 승인 2022.06.16 19:34 | 댓글 0

단일 플랫폼으로 첨단 데브옵스 기능 제공하는 '깃랩 15' 출시
단일 데브옵스 플랫폼으로 DIY 데브옵스 대체
서비스 파트너 지원 영업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시장 지속 확대

[데이터넷] 깃랩코리아(대표 현태호)는 첨단 데브옵스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깃랩(GitLab) 15'의 첫 번째 월리스 버전인 15.0을 출시하며 데브옵스 플랫폼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깃랩 15는 포괄적인 데브옵스 기능을 통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크리티컬 코드의 개발 및 협업을 지원한다. 새로운 월리스 버전은 가시성과 관측(Observability), 속도적인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앤터프라이즈 애자일 플래닝, 워크플로우 자동화 및 데이터 과학 작업부하 지원 등을 비롯한 솔루션 영역의 플랫폼 기능이 한층 향상됐다.

최근 발표된 베인(Bain)의 조사 결과 따르면, 기업의 90%는 데브옵스가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지만 12%만이 데브옵스 관행이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다양한 데브옵스 포인트 솔루션을 통합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지관리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소모되며 때문에 비즈니스의 핵심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깃랩의 최신 월리스는 기업의 해당 조직이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하는데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합 데브옵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데이비드 디산토(David DeSanto) 깃랩 제품 담당 부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한 기업들이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깃랩은 기업이 DIY(Do-It-Yourself) 툴체인을 제거하고,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코드를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과 달성을 물론 업무환경과 협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일 데브옵스 플랫폼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현태호 깃랩코리아 지사장은 "제품 및 프로젝트 증가를 기속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도입, 개발 단계나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툴 사용으로 인한 관리 및 통제의 어려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진화와 기술 인력 부족 등은 데브옵스의 복잡성을 높인다"며 "깃랩 15는 데브옵스 단일 플랫폼 제공을 통해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도입된 개발 솔루션과 연동을 통해 기존 투자를 보호하는 등 혁신적인 데브옵스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가시성·관측 기능으로 사업으로 혁결과 효율성 확보
조직은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플로우 방식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깃랩 15는 가시성을 한층 확장하고, 가치 제공 및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원격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조직의 사일로 문제 제기는 물론 공유 및 협업 강화를 뛰어친다.

깃랩의 포괄적인 관측 및 모니터링 툴은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성능 저하에 대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해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분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코드에서 운영환경까지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오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개발 조직이 배포 주기를 단축하고, 사고 발생 후 복구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깃랩은 서비스 제공 속도 개선을 위해 제품 분석 및 실험, 관측, 가시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제품 분석 및 실험 기능은 표면화된 데이터의 실용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 및 검증하고, 팀 및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데브옵스 수행 사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브옵스 플랫폼 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스트된 안전한 오픈소스 관측 솔루션을 이용해 오류 추적, 지표, 로그 및 트레이스 통합 등을 구현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및 그룹에 대한 개선된 가치 스트림 분석을 비롯해 모든 DORA4(DevOps Research and Assessment) 지표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가시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안-컴플라이언스 지속 강화

기업이 개발 프로세스 후반에 취약점을 식별하게 되면 비용 증가는 물론 보안 침해나 비즈니스 중단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복잡한 최신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배포로 인한 새로운 공격 벡터까지 결합될 수 있다.

이에 깃랩은 최신 커리스를 통해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걸쳐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능과 통합 보안 스캐닝 및 컴플라이언스 검사 기능을 제공해 개발 조직이 더 많은 블록 추가하거나 제품 제공에 방해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깃랩은 빌드 산출물에 대한 서명된 충증서와 내보내기 가능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의 자동 생성을 지원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조직이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보안 정책 세트를 그룹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정책을 편집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좁히고, 2단계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승인 규칙을 변경하도록 지원해 보안 승인 정책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조건이 그룹 및 네임스페이스(Namespace) 레벨에서 프로젝트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변경 이력에 대한 기사성도 제공한다.

특히 깃랩의 독보적인 정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SAST) 스캐너 엔진은 오탐지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항목별 제어와 보다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규칙을 제공하도록 확장했다. 또한 오픈소스 동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DAST) 스캐너를 깃랩의 독보적인 DAST 분석기로 대체

이 외에도 관리자가 프로젝트, 그룹, 설정 등에 대한 감사 이벤트를 선택한 대상으로 스트리밍해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는 다른 팀과 함께 깃랩 데이터를 공유하고, 특정 이벤트에 대응해 맞춤형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소스 코드 로컬 저장 방지와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플래닝-워크플로우 자동화

깃랩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비전을 실현하고, 디브올스 조직이 작업 방식을 개선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보적인 플래닝 기능 세트를 제공한다.

깃랩 15는 항상된 플래닝 기능을 통해 초기 분석에서 플래닝, 구현, 배포 및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브옵스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걸쳐 보다 다양한 워크플로우와 데이터 상호연결을 지원하고, 탁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또한 깃랩은 머신러닝(ML) 기능으로 데브옵스 플랫폼을 강화해 기존 기능을 보다 지능적으로 자동화해 가치 실현 시간 개선은 물론 권고안을 제시해 의사 결정 주기를 단축한다.

깃랩은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플래닝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을 지속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작업 항목 기능은 새로운 플래닝 아키텍처를 생성해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보다 다양한 워크플로우와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이 아키텍처는 계층 이슈와 에피스(Epics), 요구사항 지원을 물론 항 후에는 작업, 기능, 목표와 같은 항목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보기 및 쿼리 저장 기능은 플래닝 워크플로우와 매칭할 수 있도록 깃랩 이슈에 대한 사용자 정의 보기를 저장할 수 있다. 기업들은 짐개된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를 통해 주요 이니셔티브의 상태 및 진행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검토자 및 레이블 추천 기능은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조직 구성원과 다음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추천해 코드 검토자 선택 및 플래닝 과부하를 간소화한다. 또한 의사 결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내에 만든 제어를 통해 이지 브레이브 모드(다음 차례로)를 지원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프로필 만든다" 라인이 카카오보다 먼저 도입한 '이 기능'은

입력 2022.07.08. 오후 5:20

김우현 기자 >

추천 댓글

▶▶▶ ⌂ ⌂ ⌂

라인, 8일부터 NFT프로필 체험판 서비스 시작

카카오 도입 검토 중

일본, 대만, 태국에서 인기가 높은 메신저 '라인'이 NFT(대체불가토큰)를 프로필에 활용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카카오도 비슷한 기능을 검토 중인 가운데 라인이 한발 앞서가는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이날 일본에서 체험판 형태로 NFT 설정 기능을 시작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이 보유한 NFT를 메신저 라인의 프로필로 지정할 수 있다.

NFT는 소유권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사진, 영상 등을 NFT로 발행하면 고유번호가 매겨지고, 동시에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이미 NFT로 발행된 사진을 복제해서 재발행해도 고유번호는 복사되지 않기 때문에 진품과 가짜를 구분된다.

이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NFT를 활용하면 온라인상에서 한밖에 없는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유일함' 때문에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가 NFT를 프로필로 설정하는 기능을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예컨대 트위터는 지난 1월 유료 서비스인 '트위터블루'에 NFT 프로필 기능을 추가해 자신의 이더리움 지갑에 있는 NFT를 프로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5월에는 메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보유한 NFT를 전시하는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도 프로필 개편방안 중 하나로 메타와 비슷한 NFT 전시 기능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도입 여부와 시기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라면 도입 가능성은 적지 않다.

NFT를 프로필로 지정하거나 전시하는 기능은 디지털 지갑과 연동해야 하는 만큼 개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인은 지난 4월 NFT 거래 플랫폼인 'NFT라인'을 선보이면서 NFT 프로필 기능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NFT라인에 쓰이는 디지털 지갑 '라인비트맥스월렛'은 지난 2020년 출시했다.

한편 NFT라인에서는 이미 7만여개의 NFT가 거래됐는데 활용처가 넓어지면서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인은 프로필 설정 기능 도입을 기념해 이날 오후 6시부터 '프로프 NFT by 민토'를 출시하고, 향후 앞서 조기 풀칠된 캐릭터와 새로 민든 캐릭터를 활용한 NFT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인, 日 넘어 아시아로 커머스 보폭 넓혀...대만·태국서 성과 ↑

입력 2022.07.02. 오전 9:01

윤선훈 기자 >

7 8

☞ ↻ ⌂ 가 ☰

| '본진'인 일본서도 주요 지표 상승세...'マイスマ트ストア' 흥행 여부 주목

라인이 일본을 넘어 대만과 태국에서도 커머스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은 메신저 '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커머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2일 라인에 따르면, 라인은 일본과 대만, 태국 등 '라인 메신저'가 흥행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진'인 일본에서 꾸준히 커머스 관련 서비스 이용자 수를 늘리며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태국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인·야후 합쳐 완성한 Z경제... 이젠 구글·페북에 맞설 빅테크로" [글로벌 리포트]

입력 2022.07.03. 오후 5:57 - 수정 2022.07.04. 오후 4:01

조은호 기자 >

9 2

☞ ↻ ⌂ 가 ☰

네이버 라인·소프트뱅크 애후 경영통합 이후

황인준 Z홀딩스 글로벌 비즈니스 최고제품책임자를 만나다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카카오 합친 셈

여기에 펫아·배달의민족·여행·거느려

일본내 'Z경제권' 구축... 매출 15조원

메신저 기반으로 한 지역화장 한계

블록체인·NFT·AI 미래사업 집중

국경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진출할 것